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설계원리와 미학(2)

The Principles and Aesthetics of Traditional Wonrim Architecture of China

한동수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by Han Dong-Soo

중국의 원림건축은 성시건축, 주거건축, 궁궐건축, 사묘건축, 단묘건축, 능묘건축 등과 더불어 중국고전 건축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어떤 건축유형도 원림건축 만큼 중국인의 정신세계와 조형세계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을 정점으로 한국과 일본이 함께 일궈낸 한자문화권의 범주 속에서 세 나라가 각기 가지고 있는 건축미학의 차별성도 비교적 명확하게 담겨져 있다.

따라서 중국 고전 원림건축에 대한 이해는 최근들어 우리 건축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비교건축의 시각을 여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치와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는다. 이 연재는 모두 10회로 구성하였으며 먼저 중국 고전 원림건축의 기본적인 발전과정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 설계원리를 규명해 보며, 다음으로 몇가지 대표적인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의 과정을 탐색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오늘의 중국 현실에서 그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한다. (필자주)

〈연재목차〉

1. 시대적 풍격과 특색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
3. 원림의 경영자와 장인, 그리고 이론서
4. 원림의 건축유형과 장식
5. 공간처리 원칙과 수법
6. 경관요소와 조합방식
7. 원림작품의 분석: 자금성의 여화원
8. 원림작품의 분석: 북경의 이화원
9. 원림작품의 분석: 소주의 즐정원
10. 새시대의 정신, 새로운 원림

2. 봉건사회형태의 특징과 원림 발전의 원인¹⁾

중국 봉건사회형태의 기본적인 특징은 바로 통일된 종법(宗法) 대제국(大帝國)과 군주(君主) 집권 제도(集權制度)가 진한 이래로 2천여년간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사회형태의 모든 요소는 경제, 정치, 윤리, 문화적인 것을 막론하고 모두 황권(皇權)의 영향하에 놓여져 독립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적인 발로에서 혹은 우연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니며 경제기초라고 하는 사회활동의 가장 두터운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 봉건시기의 경제구조는 시종일관 통일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봉건사회에서의 도시와 농촌은 서로 분산된 경제단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경제구역과 경제부문이 국민경제의 전

체 틀 속에 얽혀서 통일된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것은 중국 봉건시기 경제구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였으며 정치 관계 내지 모든 상류건축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한편 사회조직을 형성하는 구성원 가운데 사대부에 대한 봉건집권제도(封建集權制度)의 제약은 다른 어떤 계층에 비하여 더욱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봉건사회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황권의 영향하에 있는 천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만일 그들이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대통일의 종법제도도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대부 계층에 대한 집권제도의 절대적인 제약에 일단 장애가 생기면 사회 전체는 즉각 전면적인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은 종법(宗法), 과거(科擧), 관제(官制), 정교문화(政敎文化) 등과 같은 관습적인 방법을 통하거나 당파(黨派), 금기(禁忌), 문자(文字)의 옥(獄)²⁾과 같은 보충방식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그것은 중국 봉건사회의 메카니즘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회형태가 허가한 범위 내에서 각 계층이 생존하고 발전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해 주었으며 황권의 전제(專制)와 통치계급, 사회전체의 이익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봉건사회형태가 지속하게 되는 기본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대부 계층의 상대적인 독립은 사회구조상 필연적인 요구였으며 집권제도의 성질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빌어 그 정도가 대단히 유한(有限)함을 결정지었다.

이것은 사대부로 하여금 일종의 고도로 발달된 간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찾거나 창조하여 자신의 상대적인 독립이 사회구조에서 어느 정도 필요함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그것이 바로 은일문화(隱逸文化)이고 원림, 산수화, 전원산수시의 형식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여기에는 사대부 자신만의 독특하고 풍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1 은일문화(隱逸文化)의 발전

은일문화의 목적은 사대부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회이상, 인격가치, 생활내용, 심미적 정취등등을 보장하는데 있다. 이러한 은일문화의 발전 초기에는 출(出)과 처(處), 사(仕)와 은(隱)의 상대적인 개념속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사대부 계급이 종법제도에서 이탈하여 집권 국가에 속하는 첫날부터 그것은 시종 그들의 인생길에서 으뜸가는 과제였다. 일찍이 공자와 맹자 시대에도 이러한 모순은 피할 도리가 없었다.

사은출처(仕隱出處)³⁾는 사대부의 정치이상의 실현여부를 결정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봉록(俸祿) 및 생사(生死)와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일문화와 사대부의 상대적인 독립지위는 그 기원이 빨랐기 때문에 쉽게 형성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원인은 진한이라고 하는 대통일 집권국가의 건립에 따른 것으로서 은일문화는 집권체계에서 진정으로 필수불가결한 조성부분이 되었다.

사대부는 자신의 상대적인 독립지위가 집권

1) 이 글의 주요부분은 왕의(王毅)의 저서인 『園林與中國文化』(상해인민출판사, 1990년)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글자로 인한 화근을 가리킴. 필화라고도 함.

3) 사와 출은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하고 은과 처는 돌아와 은거하는 것을 말한다.

체계의 요구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대부 문화에 대한 황권의 깊은 관심은 둘 사이의 친화(親和)를 촉진하였으며 쌍방의 조절관계는 갈수록 자유자재로 운영되었다.

수당 이후, 문벌사족이 점차 쇠락하면서 봉건중앙집권제도는 상대적으로 성숙하였다. 정치 영역에서의 이같은 중대변혁은 집권제도와 사대부 계층의 관계에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과거제도가 만들어졌다. 과거제도와 중앙집권국가의 강화는 사대부와 황권이 예전 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였다.

따라서 사회의 시스템도 더 많은 사대부들이 은일문화에 정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는 사대부와 황권제도의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는 한편, 둘 사이의 모순은 비로서 적절한 평형관계를 얻게 되었다. 성당시기에 이르러 사(仕)와 은(隱)은 완전히 함께 성숙하게 됨으로써 후자를 떠난 전자의 성숙은 단독적인 실현이 불가능해졌다.

한대의 특징이 일체를 강대함을 멸시하는 것이라면 당대의 특징은 일체의 성숙함을 포용하는 것이었다. 한당 문화의 이같은 차이는 집권제도가 사대부 계층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따라서 한대의 황권이 은일문화에 대하여 보인 강력한 억압과는 반대로 당대의 황권은 관대함과 보조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당대 이후, 황권의 은일에 대한 장려 및 은일을 입사(入仕)의 준비와 보충으로 여기는 사대부의 보편적인 생각은 은일문화와 원림예술의 보급 및 발전을 직접적으로 촉발시켰다. 초당과 성당시기 수 많은 은자들 가운데 노홍(盧鴻)⁴⁾은 주목할 만한 사람이다.

4) 노홍(생몰년 미상):당나라 시기의 화가로서 오늘날의 하북성 탁주에서 태어나 낙양으로 이주하여 송산에서 은거하며 살았다. 조정에서 여러차례 불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개원시기(開元時期:713-743년) 황제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은자(隱者)였다. 그가 쓴 『송산십지십수(嵩山十志十首)』에는 산, 물, 건축이 고루 갖추어진 원림의 경관과 자연을 숭상하고 그 지형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관을 만드는 사대부 원림의 원칙이 잘 묘사되어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앞서 언급한 사대부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인격, 가치관, 미학관념을 원림예술의 영혼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사대부 계층은 자신들과 집권제도의 관계, 은일이론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서부터 원림의 첩산리수기법(疊山理水技法), 회화의 산수공간 관계, 시가의 소리인식 같은 형이하학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파악하여 하나로 융합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난 원림, 회화, 시가는 단지 재능에 불과한 것으로 심오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는 결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것이 원림의 경우라면 문학, 회화, 현학, 음식, 음악 등과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히 통일된 문화체계를 이루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다.

송대에는 이학(理學)의 영향으로 이론에서부터 생활예술에 이르기까지 각종의 영역에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은출처의 평형에 대해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이 당대보다 더욱 많았다. 은일문화에 대한 이학(理學)의 인식은 전체 사대부의 발전사의 결과로서 송대 이학가들은 비로소 역사로부터 사은출처의 관계를 토론하였다.

또한 사대부의 인격에 관한 이론은 이학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로서 사은출처에 대한 인식은 필연적인 결과이고 보충적인 것이었다. 원명칭의 사대부들 역시 사은출처의 문제를 늘상 마음 속에 품고 언급하면서 전 시대의 은자들을 생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봉건집권제도가 존재하는 한 은일문화는 그 존재의 이유를 절대로 상실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의 은자들이 해야할 말을 하고 해야할 일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은자들은 더 이상 어떤 신의(新意)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으며 그저 과거의 영광을 탐독해 보는 정도에 그쳤다.

2.2 은일문화의 집합체로서 원림건축

중국봉건사회의 구조 속에서 은일문화의 역할과 지위는 대단히 분명하며 중국 고전 원림건축이 고도로 발전한 이유도 그 속에 담겨있다. 자연의 분위기로 충만한 주거 환경인 원림건축은 사대부가 은일을 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었으며 은일문화가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된 기초였다. 원림예술의 성숙과 사대부의 은일에 대한 풍조의 발전은 서로 표리적인 관계이다.

유안(劉安)이 『초은사(招隱士)』에서 묘사한 어둡고 음습한 환경 속에서의 은일문화는 사회의 메카니즘이 필요로 하는 발전정도에까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대부 계층은 자신에게 상응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추구하지 않으므로써 당송 이후 원림예술의 발전도 가장 주요한 원동력을 상실하였다. 맹교(孟郊)⁵⁾는 일찌기 사대부 원림의 역할을 '공동은 비범한 향촌이고 봉래와 영주는 선계에 있다.

말없이 멀리서 존중되는데 이 어찌 사람에게 필적하겠는가(崆峒非凡鄉, 蓬瀛在仙籍. 無言從遠尚, 茲焉與趾敵)'라고 갈파하였다. 공동⁶⁾과 봉영⁷⁾과 같은 유형의 비현실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은 현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사대부의 원림예술은 비로소 운영되어 흥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대의 장형(張衡)⁸⁾과 중장(仲長)⁹⁾에서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사대부들은 이러한 뜻을 수도 없이 말하였다. 따라서 중국 봉건사회형태와 사대부 계층의

특징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국 고전원림건축의 실질적인 모습에 근본적으로 접촉할 방도는 없다.

원림과 사대부 문화예술체계와의 관계를 보면 전자의 지위도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대 중국에서 주거환경이 사대부 문화예술활동의 가장 주요한 장소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대부의 문화예술이었던 시(詩), 화(畫), 금(琴), 기(棋), 차(茶), 주(酒), 병(病), 라(懶)등과 같은 이러한 것들의 핵심은 모두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대부의 인격, 정신, 정서등에 대한 추구였기 때문에 이러한 추구의 모든 구체적인 형식은 산수를 즐기는 사대부의 고상한 기호와의 공명(共鳴) 속에서 비로써 발견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단히 강화할 수 있었다.

사대부의 독립된 지위에 대한 상대적인 추구가 산수를 즐기는 고상한 기호(嗜好) 속에서 가장 충분히,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원림이 은일문화 속에서 시종일관 다른 모든 분파의 기초가 되는 것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다.

5) 맹교(751-814): 당대의 사람으로 자는 동아(東野)이며 지금의 절강성 덕청현 사람이다. 젊어서 송산에 은거생활을 했으며 한유와 교제를 하였다. 한유는 그를 일러 위진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부지런하여 삼고시대에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6) 산동성에 있는 섬의 이름이다.

7) 전설에 신선들이 산다고 하는 삼신산의 하나로서 봉래, 영주를 말한다.

8) 장형(78-139): 동한 시기의 과학자이자 문학가로써 지금의 허남성 남양사람이다. 천문, 음악, 역법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의 우주천체관은 주로 혼천설이다. 하늘과 땅의 관계를 계란껍질이 계란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다고 인식했다.

9) 중장(180-220): 동한 시기의 사람으로 자는 공리(公理)이며 지금의 산서성 곽평현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성격이 호방하고 기개가 있어 때로 사람들은 그를 방탕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했다.